

'CES 2026' 개막... 미국 현지에서 광주공동관 개관·운영

강기정 시장, 개관식 온라인 참여... 실시간 공유하며 기업 응원
'혁신가들의 등장' 주제... '인공지능 중심도시 광주' 세일즈 기대
시, 혁신상-비즈니스-수출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 강화에 총력
강기정 시장 "CES 기술 역량 광주 전역 혁신성과로 이어지길"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전시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6' 개막과 함께 광주시가 지역 기업들의 혁신기술을 선보일 '광주공동관'의 문을 열었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CES 2026'이 열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현지에서 광주공동관을 마련, 7일 오전 7시(현지시간 6일 오후 2시) 개관식을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했다.

'CES 2026' 현지와 광주시를 온라인 화상으로 연결해 진행한 이날 개관식에는 강기정 시장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미국 현지에서는 이시안 엘비에스테크 대표와 최기훈 이노디테크 부장 등 참가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차현록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본부장, 김창수 에임퓨처 대표, 김덕수 아우토크립토 대표, 이경주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호남대학교 이은경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했다.

특히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 이탈리아 무역진흥청(ITA) 관계자 등 글로벌 파트너들도 참석해 광주 기술력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개관식에서는 CES 2026 참가 기업들이 직접 기업과 기술을 소개하며 각오를 밝

혔고, 국내에서는 화상연결을 통해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참가 기업들을 응원했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지역 기업들을 역량을 축적하기 위해 어느 지자체보다 진심을 담아 CES에 임하고 있다"며 "매년 CES 참여를 통해 쌓인 경험과 역량이 광주 전역의 혁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미래 기술의 현황을 누비며 기업의 성장과 광주 산업의 미래를 깊이 고민하고, 새로운 혁신 성과를 창출해 달라"고 밝혔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는 정보기술(IT)·가전·모빌리티·헬스케어 등 융합 전시회로,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다. 세계적인 혁신기술과 제품, 글로벌 시장동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 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다.

올해 주제는 '혁신가들의 등장(Innovators Show up)'으로 인공지능을 앞세운 신기술의 부상 속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CES 2026에는 광주시 지원기업 17개사를 포함한 지역 혁신기업 28개사가 참가했다. 광주시 지원기업 중 13개사는 광주공동관에서, 4개사는 K-Startup 통합관에



서 기술력을 선보인다. 이들은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며 인공지능(AI) 중심도시 광주의 위상을 높이고, 광주 세일즈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광주공동관'은 베네시안엑스포 2층 글로벌 파빌리온 구역에 위치했으며, 'K-Stratup 통합관'은 1층 유레카파크 구역에 마련됐다. 광주시는 그동안 '혁신상 지원-비즈니스 교육-후속 수출'로 이어지는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들의 해외 판로 개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광주공동관은 바이어들의 동선과 방문객의 편의를 고려해 사방이 트인 개방형 구조로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메인 LED 전광판은 광주의 매력을 알리는 다각도 홍보가 진행되며, 내부에는 기업 기술 시연과 피칭이 가능한 가변형 공간을 마련해 입체적인 전시 효과를 구현

했다.

이 곳에서는 최고혁신상을 거머쥔 '엘비에스테크'는 인공지능(AI) 기반 접근성 설계 시스템인 '마스브릿지'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이노디테크'는 인공지능(AI) 치아교정 솔루션으로 국내 업계 최초의 혁신상 수상이라는 성과를 거뒀다. 여기에 인간안보 가치를 실현한 '올더타임'의 '더 가이드' 기술력도 선보인다.

또 '인비즈', '데이터투에너지', '제로웰', '스페이스에이아이', '영앤', '유니컴퍼니', '정선메드', '메리랜드', '센도리', '맨인블록' 등도 혁신제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K-Startup 통합관에는 '주미당', '사각', '벨리온시스', '브레인웍스' 등 지역 4개사 제품이 전시된다. /전광춘 기자

월 10만원씩 100만원 저축하면 100만원 지원 광주시, '청년13(일+삶)통장' 620명 모집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일(1)하는 청년의 더 나은 삶(3)을 지원하는 '청년13(일+삶)통장' 제1기 참여자를 8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

'청년13통장'은 19~39세 근로청년이 매월 10만원씩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지원해 총 200만원의 만기금과 이자를 마련할 수 있게 하는 광주시 대표 청년 금융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다.

올해 모집 인원은 620명으로, 광주시는 지난 7기(500명) 이후 꾸준히 모집 규모를 늘려 지역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만기율은 96.5%로, 참여자 620명 중 598명이 만기금을 수령(총 만기금 11억 9600만원)했다.

참여 청년들은 재무 관리, 지출 습관 개선 등 금융 역량강화 프로그램에도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신청 대상은 고교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이고, 최소 3개월 이전부터 근로한 청년이다. 본인의 세급포함 월 소득은 92만556원~307만 7086원으로 해당해야 한다.

접수는 올해부터 '광주청년통합플랫폼' (<https://youth.gwangju.go.kr/www>)을 통해 진행한다. 지난 2025년 4월 개통한 광주청년통합플랫폼은 분산된 사업별 누리집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청년정책 참여 편의성과 접근성을 크게 향상했다. 최종 참여자는 서류 심사 적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 추첨하며, 추첨 과정은 광주청년센터 유튜브(<https://www.youtube.com/@gjyouthcenter>)를 통해 공개한다.

참여자는 2월부터 1회차 10만원 납입을 시작으로 11월까지 10개월간 100만원을 저축하며, 광주시는 10개월간 금융교육 등을 통해 청년 금융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청년센터에 문의(062-372-5990)하거나 광주시 누리집 또는 광주청년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윤숙 청년정책과장은 "광주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사회 진출과 경제 지립을 돕는 다양한 정책으로 '청년이 꿈을 이루는 기회도시 광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전남 기업, CES 2026서 글로벌 기술 경쟁력 입증

미국 시장 진출위한 계약·기술협력·혁신상 수상 성과

전남관 개관... 지역 유망기업 혁신기술 세계무대 선보

전라남도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 CES 2026에서 지역 기업들이 독보적 기술력을 앞세워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독점 계약과 기술 협력을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베네시안 엑스포에서 전남관 개관식을 갖고 전남 기업의 혁신 기술을 세계 무대에 선보였다.

개관식에선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 프란시스 엘런-팔렌스키 라브베이거스 시의원, 김항호 라스베이거스 한인회장, 해외 바이어 등 60여 명이 참석해 전남의 미래 산업 가능성을 확인했다. 특히 도내 유망 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실질적 비즈니스 성과를 창출하는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

AI 재난감지 솔루션 기업인 ㈜아이아이에스티(IIST)는 미국 퍼시픽 테크(Pacific Tech and Innovation Inc.)와 북미 시장 진출과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현지 시장 안착을 위한 마케팅과 운영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는 전남의 AI 기술이 북미 공공 안전 시장에 진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올해 전남은 기술력 면에서 역대 최고의 평가를 받았다. ㈜아이아이에스티(재난감지), ㈜터빈크루(에너지), ㈜뉴작(XR), ㈜고려오토론(반도체) 등 4개 기업이 총 5개의 'CES 혁신상'을 수상하며, 전남의 산업 생태계가 데이터와 AI를 축으로 한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전세계에 증명했다.



또한 전남도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오래건주 정부 관계자, 오래건 기술협회와 기업 10개 사 관계자도 전남관 개관식에 참석, 호그린에어 등 CES 참가 전남기업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하는 등 많은 관심을 표명했다.

신현곤 국제협력관은 "이번 기술 협력 성과는 전남 기업의 기술력이 세계시장에도 충분히 통용될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조성 중인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

를 기반으로, 더 많은 전남 기업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이번 CES 성과를 발판으로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글로벌 데이터·에너지 허브'로 육성하는 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4GW급 전력망 구축 여건과 신속한 인허가 절차 등 솔라시도의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적극 홍보했다. /염성호 기자

'미래 전기 거북선' 띄운 한전, CES 2026서 글로벌 공략

한국전력이 세계 최대 기술 전시회 CES 2026 무대에 올라 한국의 전통미학과 첨단 전력기술을 결합한 국가대표 전시관으로 글로벌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다.

한전은 6일부터 9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노스홀에서 열리는 CES 2026에 참가해 '한전관'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전시의 주제는 '오늘 만나는 내일의 전기(Power of Tomorrow, Discovered Today)'다.

전기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전력 밸류체인 전 단계를 아우르는 자체 개발 9대 신기술을 선보인다.

전시 기술은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송변전 예방진단 솔루션(SEDA) ▲지중케이블 고장점 탐지(SFL) ▲차세대 배전망 관리 시스템(ADMS) ▲DC 배전 ▲스마트

계량기(AMI) ▲1인기구 안부살핌 서비스 ▲전력설비 자산관리 시스템(K-AMS) 등이다.

한전은 전시관 콘셉트로 '미래 전기 거북선'을 내세웠다.

조선시대 거북선이 혁신 기술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상징이었던 것처럼, 기후 위기와 에너지 안보 등 인류가 직면한 복합 위기를 미래 전력기술로 극복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전시는 ▲불임형 LED 실감영상 ▲한국적 요소를 접목한 배너 영상 ▲키오스크형 기술 요약 영상 ▲QR 코드 기반 기술 상세 설명 등 4단계 체험형 콘텐츠로 구성됐다. 관람객은 전력기술을 직관적인 스토리와 시각적 경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또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업해 대한민국 전통·역사·문화유산의 혁신적 가치와 미래 전력기술을 결합한 콘텐츠도 선보인다. /임채일 기자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야채